

대학도서관에서 대출된 번역서와 대출자 전공과의 관계 연구

The Correlation between Library Users' Fields of Study and the Use of Translated Works in University Libraries

이 현 영(Hyun-Young Lee)*

목 차

- | | |
|----------------------|--------------------|
| 1. 서론 | 2. 2 연구의 방법 |
| 1. 1 연구의 배경 | 2. 3 자료의 수집 |
| 1. 2 연구의 필요성 및 활용 방안 | 2. 4 자료의 처리 |
| 1. 3 용어의 정의 | 3. 번역서의 이용 분석 |
| 1. 4 선행연구의 개관 | 3. 1 대학도서관의 대출 환경 |
| 2. 연구 방법 | 3. 2 번역서의 이용목적별 분석 |
| 2. 1 연구의 가설 | 4.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에 서양서와 그것을 번역한 번역서가 함께 소장되어 있을 때, 도서관 이용자들이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와 학술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 서양서와 번역서의 이용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철학 및 문학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3개 대학도서관의 컴퓨터 안에 담겨져 있는 대출 기록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가 추출되고 그 데이터가 통계 처리되고 분석되었다. 그 결과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할 때 원서 및 번역서의 이용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분야는 영문학, 독문학, 불문학 등의 학문 분야이고 유의한 차이가 없는 분야는 철학 분야로 밝혀졌다.

ABSTRACT

In the climate of increasing calls for academic assessment, the author undertook a study to ascertain availability of original texts and their translations in the academic library.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use frequency of original texts by academic major of users in the university libraries. To achieve this object, the author collected the data stored in 3 Korean university library online systems from September 10th to 30th, 1995 and tested the hypotheses by using the Minitab statistical package. Libraries with multilingual collection and automated systems will find the methodology presented here particularly valuable.

*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논문실
접수일자 1998년 3월 24일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본 연구자는 특정 외국원서와 그것을 번역한 번역서가 함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때 서양서에 비하여 번역서가 얼마나 이용되는지, 번역서 이용률이 이용자 신분별로 그리고 번역서의 주제별로 어떻게 다른지 등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밝힌 바 있다(이현영, 1995).

그 결과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국어로 된 자료에 비하여 덜 이용되고 있고 번역서의 주제에 따라 번역서의 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 분야의 도서를 이용할 때와 비전공분야의 도서를 대출할 때로 구분하여 번역서 이용률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지는 않았다.

대학도서관에서 학술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하는 일은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설치된 학과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어느 대학이든 그 대학 내에 설치된 학과에서 가르치는 전공 분야의 도서를, 설치되지 않은 학과와 관련된 전공 도서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구입하게 될 것이고 도서 이용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교양 도서를 선정하고 구입하는 일은 단순히 특정 학과의 존재 여부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교양 목적으로 많이 읽히는 철학 분야나 문학 분야의 도서는 해당 학과의 설치 여부에 따라 구입량이나 이용률이 증감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요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 학술 목적으로 전공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와 교양목적으로 비 전공 분야의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를 따로 구분하여 이용 실태를 보다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으로써 보다 정교한 이용데이터에 의거하여 도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에 서양서와 그것을 번역한 번역서가 함께 소장되어 있을 때, 도서관 이용자들이 교양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와 학술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 서양서와 번역서의 이용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철학 및 문학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다.

1.2 연구의 필요성 및 활용 방안

본 연구는 도서관의 수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즉 수서시에 특정 학과가 설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주제 분야에서 원서나 번역서가 각각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 예측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상황별로 번역서 혹은 원서에 대한 구입량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도서의 배열(예를 들면 개가도서실이나 보존도서실에 비치하는 등)이나 폐기처분 업무 등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 종합대학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지만 상황이 유사하지 않은 여타의 도서관(예컨대 장서의 주제가 일부 분야에 치우쳐

있는 도서관)에서도 본 연구 모형을 이용하여 자관의 주제별 번역서 이용률을 전공 분야와 비전공 분야로 나누어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한다고 함은 전공 분야의 도서를 이용함을 의미한다. 또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한다고 함은 비전공 분야의 도서를 이용함을 의미한다.

1. 4 선행연구의 개관

국내에서 번역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사례는 별로 없다.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외에는 박은자가 두 차례 연구한 적이 있을 뿐이다. 박은자의 첫 번째 연구 주제는 “미국 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본 출판 상황”으로서 미국의 문학작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번역 출판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밝힌 것이고(박은자, 1990), 두 번째 연구는 “번역활동과 번역 문헌의 서지도구 고찰”로 이 논문은 번역의 중요성, 역사 등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번역 활동 상황을 밝힌 것이다(박은자, 1987). 따라서 이 논문들은 번역서의 이용보다는 생산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학위논문에서 특정 외국원서와 그것을 번역한 번역서가 함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을 때 서양서에 비하여 번역서가 얼마나 이용되는지, 번역서 이용률이 이용자 신분별로 그리고 번역서의 주제별로 어떻게

다른지 등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밝힌 바 있다(이현영, 1995). 그 결과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국어로 된 자료에 비하여 덜 이용되고 있고 번역서의 주제에 따라 번역서의 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구자춘은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을 표본 도서관으로 선정하여 관외 대출이 허용된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분야의 대출도서와 장서의 마지막 대출일을 조사하여 별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파악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구자춘, 1985) 그 결과 물리학 분야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원인이 외국어로 쓰여 있기 때문인 경우가 7.2%로 나타났다. 화학 분야에서는 8.2%, 화학공학분야에서는 8.6%가 외국어로 쓰여진 까닭에 별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었다.

봉선화는 그의 논문 “대학교수의 정보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교육학 분야와 기계공학 분야의 대학 교수들이 어떤 언어로 쓰여진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가를 알아보았다(봉선화, 1991). 자료를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언어는 한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의 5개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언어 두 가지를 순서대로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육학 분야 단행본의 언어는 영어(59.8%), 한국어(35.4%), 일어(3.7%), 독어(1.2%)순으로 나타났고, 기계공학분야에서는 영어(87.8%)와 한국어(35.4%)자료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자료의 언어는 교육학 분야에서는 국어 46.9%, 영어

38.3%, 일어 14.8%의 순이었다. 교육학 교수들은 67.1%가 영어로 쓰인 학술잡지를 이용하고, 기계공학 교수들은 90.5%가 영어로 쓰여진 학술잡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40.7%, 영어 30.9%, 일어자료 25.9%의 순이며, 불어와 독어 자료는 각각 1.2%가 이용되었다.

양병훈은 전남대학교 도서관의 정치학 및 사회학 분야의 장서를 조사한 결과 서양서의 65.8%와 동양서의 23.2%가 전혀 이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양병훈, 1984). 동 연구에서 정치학 및 사회학 분야의 장서 5,400책을 언어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도서가 34.0%(1,834책)이고, 영어도서가 53.0%(2,862책), 일본어도서가 12.5%(676책), 중국어도서가 0.5%(23책)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밖에 독일서 0.1%(4책)와 불서 0.02%(1책)가 소장되어 있었다.

William A. Britten과 Judith D. Webster는 테네시대학교(University of Tennessee)에서 많이 대출된 도서의 특징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적이 있다.(William A. Britten and Judith D. Webster, 1992) 그 가운데 도서의 언어별로 대출 횟수를 조사한 부분은 본 연구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테네시대학교에서 사용하는 LC분류기호의 주류(Class)별로 1만 권 이상의 도서를 소장한 분야들을 선정하였다. 해당 주제 분야에서 많이 대출된 400권을 대상으로 그 언어를 조사하고, 언어별로 소장 도서수는 몇 책이며 대출 횟수가 많은 도서는 몇 책이나 되는지 비교하여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프랑스, 이태리, 에스파니아 문학” 분야의 영어 도서는 전체 도서의 27%이지만 대출량이 많은 책(400책)의 79%를 차지하고 있었고 프랑스어 도서는 전체 책의 32%나 되지만 대출량이 많은 책의 6%만을 차지하였다. 에스파니아어 도서는 장서의 31%를 차지하지만 대출량이 많은 책의 14%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탈리아어 도서는 장서의 6%를 차지하지만 대출량이 많은 책은 거의 없었다. 포르투갈어 도서는 장서의 2%를 차지하는데 대출량이 많은 책의 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외국 문학(비영문학) 분야에서도 외국어도서에 비하여 영어로 번역된 도서를 훨씬 더 선호하여 대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W. L. Saunders는 외국어로 된 사회과학 잡지의 상당량이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외국어 잡지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외국자료가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외국어 지식이 불충분하고, 서지탐색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Saunders, 1972).

W. J. Hutchins 등이 행한 연구에서는 연구자, 연구담당 직원, 학생 등의 64%가 모든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영어로 발표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비영어권 국가의 중요한 연구를 놓쳐 버린 적이 있는냐는 질문에는 3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관련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외국어 도서와 그것을 번역한 번역서가 함께 구비 되어 있을 때 어떤 도서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이용목적과 관련시켜 주제별로 분석한 연구는 본 연구자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과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다시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소가설로 구분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1) 철학 분야에서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과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영문학 분야에서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과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독문학 분야에서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과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불문학 분야에서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과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연구의 방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 서양서와 그것을 번역한 번역서가 함께 소장되어 있을 때, 도서관 이용자들이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 서양서와 번역서의 이용률이 어떻게 다른지를, 철학 및 문학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밝히고자 한다. 문학 가운데서는 서양 문학 그중에서도 영문학과 불문학, 독문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까닭은 원서와 번역서가 그 분야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동양의 외국 자료 및 그것의 번역서보다). 주제별로 원서 및 번역서 이용률을 밝히기 위하여 통계 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산화된 대학도서관의 컴퓨터 안에 담겨져 있는 대출 기록들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 성취에 필요한 데이터가 추출되고 그 데이터가 통계 처리되고 분석되었다. 데이터를 각 대학도서관에서 입수한 기간은 1995년 9월10일부터 9월 30일 사이였다.

2.3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국립대학도서관보(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4)에 나와 있는 22개 국립종합대학 도서관 중에서 특수목적 대학인 부산수산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 4개 대학을 제외한 18개 대학과, 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발행한 회원교편람(전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1995)에 기록된 대학도서관 가운데 장서수가 1994년말 현재 20만권이상인 41개 대학

도서관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양자를 합하여 총 59개 대학도서관을 조사 대상 대학도서관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59개 대학도서관중 대출 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는 45개 대학도서관을 확인하고 그 45개 대학도서관의 전산 업무 담당자 또는 대출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대출데이터를 추출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서양서와 그것을 번역한 번역서가 함께 구비된 상황에서 대출자가 어떤 도서를 대출하였는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PC통신"으로 보내 주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어떤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45개 대학도서관 중 42개 대학도서관이 필요한 대출 데이터 추출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3개 도서관만이 요청한 데이터를 보내왔다. 연구자가 제시한 알고리즘을 참고하여 자관의 전산프로그램에 맞게 프로그램을 추가로 작성하여 자관의 마스터파일과 대출파일을 연결시킴으로써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내 준 것이다.

2. 4 자료의 처리

3개 대학도서관에서 보내온 데이터는 "Foxbase+" 패키지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변형시켜 처리함으로써 신분별, 주제별 대출 횟수를 파악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3개 도서관중 2개 도서관은 DDC를, 1개

도서관은 KDC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KDC를 쓰고 있는 도서관의 데이터는 DDC 방식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 처리는 전산통계패키지인 미니탭(Minitab)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3. 번역서의 이용 분석

3. 1 대학도서관의 대출 환경

먼저 분석대상이 된 3개 대학도서관의 대출 환경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다. <표 1>은 조사 대상 대학별로 도서관의 자료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표시한 것이며 각 대학의 소재지, 학과수, 장서수, 전체 대출량, 분류표, 전산시스템명 등을 보여준다. 이 3개 대학도서관의 장서량은 우리나라 사립대학중 장서량이 많은 10대 도서관 속에 모두 속한다(1994년말 통계).

<표 1>은 대학 환경과 도서관 전체 장서수, 전체 대출량 등을 나타낸 것이지만 그 다음에 제시되는 표들은 각 도서관에서 서양서 원본과 그에 대한 번역서가 함께 있는 경우 그 두 가지 책이 대출된 횟수를 가지고 통계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서 대출 횟수나 번역서 대출 횟수는 도서관 전체의 원서나 번역서 대출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된 3개 도서관에 원서와 번역서가 함께 짝을 이루어 소장된 도서들의 대출 횟수를 합한 것이다.

3. 2 번역서의 이용 목적별 분석

3. 2. 1 개요

〈표 2〉는 조사 대상 학문 분야의 원서와 번역서의 대출 횟수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대출 기간은 1994년 3월부터 1995년 8월까지 18개월 동안이다.

〈표 2〉를 보면 4개 학문분야에서 모두 13,301회 대출되었는데 그중 학술목적으로 2,511회 대출되어 18.9%를 차지하고 있고 교양목적으로 10,790회 대출되어 전체의 81.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철학이나 외국문학과 같이 전공에 관계없이 교양 목적으로 읽히는 분야의 도서는 해당 학문분야의 전공자보다 비전공자의 수가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교양 목적으로 대출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학술 목적으로 대출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독문학 분야(41.6%)이고 이어서 불문학(37.0%), 영문학(19.3%), 철학 분야

(11.1%) 등의 순이다. 역으로 교양 목적으로 대출된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물론 철학 분야이고, 이어서 영문학, 불문학, 독문학 분야 등의 순이다.

학술 목적으로 이용한 번역서 이용률과 교양 목적으로 이용하는 번역서 이용률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통계 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표로 작성하고 카이제곱 검정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검증하여 보기로 한다.

3. 2. 2 조사 대상 분야의 번역서 이용 분석

다음 〈표 3〉은 철학, 영문학, 독문학, 불문학 분야 등을 종합하여 원서 대출 횟수와 번역서 대출 횟수를 대출 목적별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표 1〉 분석대상 대학도서관의 대출 환경

대학도서관	대학 소재지	학 과 수	장 서 량 (1994 년말 기준)	94학년도 전체 대출책수	분 류 표	전산 시스템
이화여대	서울	60	787,536책	456,611책	DDC	ELIS
영남대	지방	95	673,637책	210,614책	KDC	LINNET
계명대	지방	81	573,477책	319,757책	DDC	KIMS

〈표 2〉 원서와 번역서의 학문분야별 및 대출목적별 이용률

학문분야	학술목적 대출		교양목적 대출		합계	
	횟수	%	횟수	%	횟수	%
철학	595	11.1	4,789	88.9	5,384	100.0
영문학	1,134	19.3	4,743	80.7	5,877	100.0
독문학	243	41.6	341	58.4	584	100.0
불문학	539	37.0	917	63.0	1,456	100.0
합계	2,511	18.9	10,790	81.1	13,301	100.0

〈표 3〉. 원서와 번역서의 대출 목적별 이용률

대출 목적 \ 대출도서 종별	원서 대출		번역서 대출		합계	
	횟수	%	횟수	%	횟수	%
학술 목적	292	11.6	2,219	88.4	2,511	100%
교양 목적	632	5.9	10,158	94.1	10,790	100%
합 계	924	6.9	12,377	93.1	13,301	100%

검정 결과 : $\chi^2 = 104.967$, $df = 1$, $p = 0.000$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과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자승 검정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카이자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도를 계산하고 그 자유도에 맞는 카이자승 분포의 제 95백분위수가 카이자승 값보다 작으면 가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χ^2 이 104.967이고 df 값이 1, p 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자유도가 1인 카이자승 분포의 제 95백분위수는 3.841이고 카이자승 값은 104.967로 3.841보다 크므로 학술 목적 대출과 교양 목적 대출 사이의 번역서 이용률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가설은 입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번역서는 12,377회 대출되었고 원서는 924회 대출되었다. 즉 번역서가 전체 대출의 93.1%를 차지하고 원서는 6.9%를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서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은 외국어의 장벽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대단히 크게 작용함을 보여 준다. 또 학술목적 대출인 경우에는 번역서의 대출 비율이 88.4%를 차지하는데 반하여 교양 목적

의 대출은 번역서의 대출 비율이 94.1%를 차지한다.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자기 전공도서의 외국어 전문용어에 비교적 친숙하고, 학술 논문 작성시 원전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학습 목적으로 원전을 독해할 필요성이 있는 등의 요인 때문으로 추정된다.

3. 2. 3 철학 분야의 번역서 이용 분석

다음에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소가설을 검증하여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소가설은 철학 분야에서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과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의 번역서 이용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학 분야에서는 전체 대출횟수가 5,384회이다. 그중 번역서 대출 횟수가 5,113회, 원서 대출횟수가 271회이다. 자유도가 1인 카이자승 분포의 제 95 백분위수는 3.841이므로 카이자승 값이 3.841보다 크면 가설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산된 카이자승값은 0.968이므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철학 분야에서는 전공 분야의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나 비전공 분야의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나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다. 철학 분야에서는

학술 목적으로 번역서를 대출하는 비율은 95.8%이고 교양 목적으로 번역서를 대출하는 비율은 94.9%이다. 매우 적은 차이이지만 교양 목적으로 번역서를 이용하는 비율보다 학술 목적으로 번역서를 이용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다. 이런 결과는 특정 대학내에 철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치된 대학과 유사한 양의 철학 분야 원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3. 2. 4 영문학 분야의 번역서 이용 분석

다음으로는 영문학 분야에서 학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와 교양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사이에 번역서 이용률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영문학 분야에서는 카이제곱이 88.394로 나타났고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의 제

95 백분위수인 3.841보다 크고, P값이 0.050보다 훨씬 작은 0.000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술 목적 대출 횟수와 교양 목적 대출횟수의 번역서 이용률의 차이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 번역서는 950회 대출되어 83.8%를 차지하고 교양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번역서가 4396회 대출하여 92.7%를 차지한다. 원서 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술 목적으로 원서를 대출하는 비율이 16.2%로 교양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7.3%)보다 두 배 이상이다. 따라서 영문학과가 설치된 학교일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영문학 분야의 원서를 더 많이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

3. 2. 5 독문학 분야의 번역서 이용 분석

다음으로는 독문학 분야에서 학술목적으

<표 4> 철학 분야의 대출목적별 번역서 이용률

대출도서 종별	원서 대출		번역서 대출		합계	
	횟수	%	횟수	%	횟수	%
대출 목적						
학술 목적	25	4.2	570	95.8	595	100.0
교양 목적	246	5.1	4,543	94.9	4,789	100.0
합 계	271	5.0	5,113	95.0	5,384	100.0

검정 결과: $\chi^2=0.968$, $df=1$, $p=0.3252$

<표 5> 영문학 분야의 대출 목적별 번역서 이용률

대출도서 종별	원서 대출		번역서 대출		합계	
	횟수	%	횟수	%	횟수	%
대출 목적						
학술 목적	184	16.2	950	83.8	1,134	100.0
교양 목적	347	7.3	4,396	92.7	4,743	100.0
합 계	531	9.0	5,346	91.0	5,877	100.0

검정 결과: $\chi^2=88.394$, $df=1$, $p=0.000$

로 대출하는 경우와 교양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사이에 번역서 이용률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6〉을 보면 χ^2 이 27.489이고 df값이 1, p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의 제 95백분위수는 3.841이고 카이제곱 값은 27.489로 3.841보다 크므로 학술 목적 대출과 교양 목적 대출 사이에 나타난 차이가 유의하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독문학 분야에서는 전체 대출횟수가 584회로 나타났는데 번역서를 대출한 횟수는 548회로 그 대부분(93.8%)을 차지하고 있고 원서는 36회 대출되어 6.2%를 차지한다.

특히 교양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번역서의 비율이 무려 98.2%를 차지한다. 학술 목적으로 번역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보다 다소 적은 87.7%를 차지한다. 즉 독문학 분야에 특정 원서와 번역서가 함께 소장되어 있을 경우에 대부분 번역서를 이용하는 비율은 영문학 분야보다 높다. 즉 독일어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언어 장벽 특히 비전공자들의 언어장벽이 영어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서 이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독일어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독일 원서를

대출하지 않고 대부분 번역서를 이용하는 반면에 독일어를 전공한 이용자는 비 전공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원서를 대출하고 있다. 영문학 분야의 경우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하여 두 배 가량 많은 원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독문학 분야에서는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하여 무려 일곱 배 가량이나 된다.

독문학 분야에서도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보다 원서 이용률이 대단히 높다. 당연히 독문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독문학 분야에 더 많은 원서를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3. 2. 6 불문학 분야의 번역서 이용 분석

다음으로는 불문학 분야에서 학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와 교양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사이에 번역서 이용률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7〉을 보면 χ^2 이 23.740이고 df값이 1, p값은 0.000으로 나타났다. 자유도가 1인 카이제곱 분포의 제 95백분위수는 3.841이고 카이제곱 값은 23.740으로 3.841보다 크므로 학술

〈표 6〉 독문학 분야의 대출목적별 번역서 이용률

대출 목적 \ 대출도서 종별	원서 대출		번역서 대출		합계	
	횟수	%	횟수	%	횟수	%
학술 목적	30	12.3	213	87.7	243	100.0
교양 목적	6	1.8	335	98.2	341	100.0
합 계	36	6.2	548	93.8	584	100.0

검정 결과: $\chi^2=27.489$, $df=1$, $p=0.000$

〈표 7〉 불문학 분야의 대출목적별 번역서 이용률

대출 목적 \ 대출도서 종별	원서 대출		번역서 대출		합계	
	횟수	%	횟수	%	횟수	%
학술 목적	53	9.8	486	90.2	539	100.0
교양 목적	33	3.6	884	96.4	917	100.0
합 계	86	5.9	1,370	94.1	1,456	100.0

검정 결과: $\chi^2=23.740, df=1, p=0.000$

목적 대출과 교양목적 대출 사이에 나타난 차이가 유의하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불문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학의 도서관보다 불문학 분야의 원서를 더 많이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불문학 분야에서는 전체 대출횟수가 1,456 회로 나타났는데 번역서를 대출한 횟수는 1,370회로 그 대부분(94.1%)을 차지하고 있고 원서는 86회 대출되어 5.9%를 차지한다. 특히 교양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번역서의 비율이 무려 96.4%를 차지한다. 학술 목적으로 번역서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보다 다소 적은 90.2%를 차지한다. 즉 불문학 분야에 특정 원서와 번역서가 함께 소장되어 있을 경우에 대부분 번역서를 이용하는 비율은 영문학 분야보다 높고 독문학 분야보다는 약간 낮다. 즉 불어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언어 장벽 특히 비전공자들의 언어장벽이 영어에 대한 장벽보다 훨씬 더 높으나 독일어에 대한 장벽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인다.

원서 이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불문학 원서를 대출하지 않고 대부분 번역서를 이용하는 반면에 불문학을 전공한 이용자는 비 전공자에

비하여 훨씬 많은 원서를 대출하고 있다. 영문학 분야의 경우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하여 두 배 가량 높은 원서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독문학 분야에서는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하여 원서이용률이 일곱 배 가량 높은 데 불문학 분야에서는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하여 원서 이용률이 3배 가량 높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서 이용률의 차이가 있는지 밝히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철학, 영문학, 독문학, 불문학 분야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얻은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 때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할 때 번역서의 이용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보다 번역서 이용률이 높다. 역으로 원서 이용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가 교양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보다 두 배 가량 높다.

둘째, 세부적으로 볼 때 철학 분야에서는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철학 분야에서는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에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 보다 번역서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특정 대학내에 철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철학과가 설치된 대학과 유사한 양의 철학 분야 원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셋째, 영문학, 독문학, 불문학 등의 학문 분야에서는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경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 세 분야는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가 학술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 보다 번역서 이용률이 높다. 교양 목적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 번역서 이용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독문학 분야이고 그 다음이 불문학, 영문학 분야의 순이다. 당연히 영문학과, 독문학과, 불문학과 등의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하여 해당 분야의 원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참 고 문 헌

- 구자춘. 1985. "대학도서관장서의 별무이용 도서 원인분석 : 고려대학교 과학 도서관 리학, 화학, 화공학 분야 장서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 1984. "학문분야 및 학과별 도서관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자. 1990. "미국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본 출판상황." 도서관학 18. 157-212.
- 박은자. 1987. "번역활동과 번역문헌의 서지 도구 고찰." 국회도서관보 24(3), 5-29.
- 봉선화. 1991. "대학교수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영. 1995. "대학도서관에서의 번역서 이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병훈. 1984. "대학도서관 장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1994. 국립대학도서관보. 12.
-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1995. 회원교편람. 대구 : 동협의회.
- Britten, William A. and Judith D. Webster. 1992. "Comparing Characteristics of Highly Cir-

- culated Titles for Demand Driven Collection Development”, *College & Research Libraries* may. 360-365.
- Fussler, Herman and Julian Simon, 1969. *Patterns in the Use of Books in Large Research Librarie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Hardesty, L. 1981. “Use of Library Materials at a Small Liberal Arts” *College Library Research* 3, 261-282.
- Hutchins, William J. Lisbeth J. Pargeter, and Wilfred L. Saunders. 1971. “University Research and the Language Barrier” *J. Librarianship* 3(1), p.6
- Jane, A.K. 1967. *Report on a Statistical Study of Book Use*. Lafayette, Ind., Purdue University, School of Industrial Engineering.
- Kent, A. et al. 1979. *Use of Library Materials: the University of Pittsburgh Study*. New York: Dekker.
- Norton, Tom. 1991. “Demonstrating the Valu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Library Quarterly Bulleti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gricultural Information Specialists*. 36(12):90-93
- O’connel, J.B. 1984. “Collection Evaluation in a Developing Country. : A Mexican O’Connel Study.” *Libri* 34(1) : 52-53
- Saunders, Wilfred L. 1972. “The Foreign Language and Translation Problems of the Social Sciences”. *Aslib Proc.* 24:1 p.p.236-237.